

안정된 양계를 바란다

양계 산업의 앞으로의 과제

오 세 정
<건국대측대 교수>

1. 국내사료자원활용과 개발
2. 국산계육종개량증식
3. 통계조사실시 및 공개
4. 부화장시설기준강화와 종계등록사업
5. 협동체계에 의한 생산제열화
6.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증대
7. 양계진흥법제정

어느 사업이나 호경기 후에는 반드시 불황의 씨앗을 낳게 마련이며, 불황이 지나가면 호경기의 희망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이와같이 경기(景氣)의 변동은 파도의 물결과 같이 항상 반복되는 것이 원리이다.

양계업제도 예외는 될 수 없는 일이며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 다만 요인과 그의 정도,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세계의 과학문명은 평화시보다 처참한 전쟁후에 더욱 발전되고 있는 것과같이 양계업제도 호경기에는 수(數)와 규모(規模)면에서 즉 외형적인 발전을 가져올런지 모르나 내적 즉 과학적인 기술과 경영의 개선은 오히려 불황속에서 연구개발이 더 되는 것이며 박차를 가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당면한 불황의 요인을 분석검토하고

반성하여 선후책을 강구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요인으로 불황을 마지하지 않도록 강인한 인내와 과감한 개선책으로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의 불황 요인은

(1) 71년도 상반기에 지나친 호경기로 인하여 이에 편승하여 생산이 과잉되었으며

(2) 선거후 하반기에 서정쇄신, 은행의 정상화방안으로 인하여 경제계 위축, 비상사태선언 등 여러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소비성이 위축되어 구매력의 감소를 가져왔고

(3) 환율의 변동과 외환수급의 불균형

(4) 외국계 과다도입으로 인한 과다한 경쟁이 되었고

(5) 부화장의 난립과 규모의 확대 그리고 능력의 과잉으로 치열한 경쟁이 되어 초생추가 과잉 생산이 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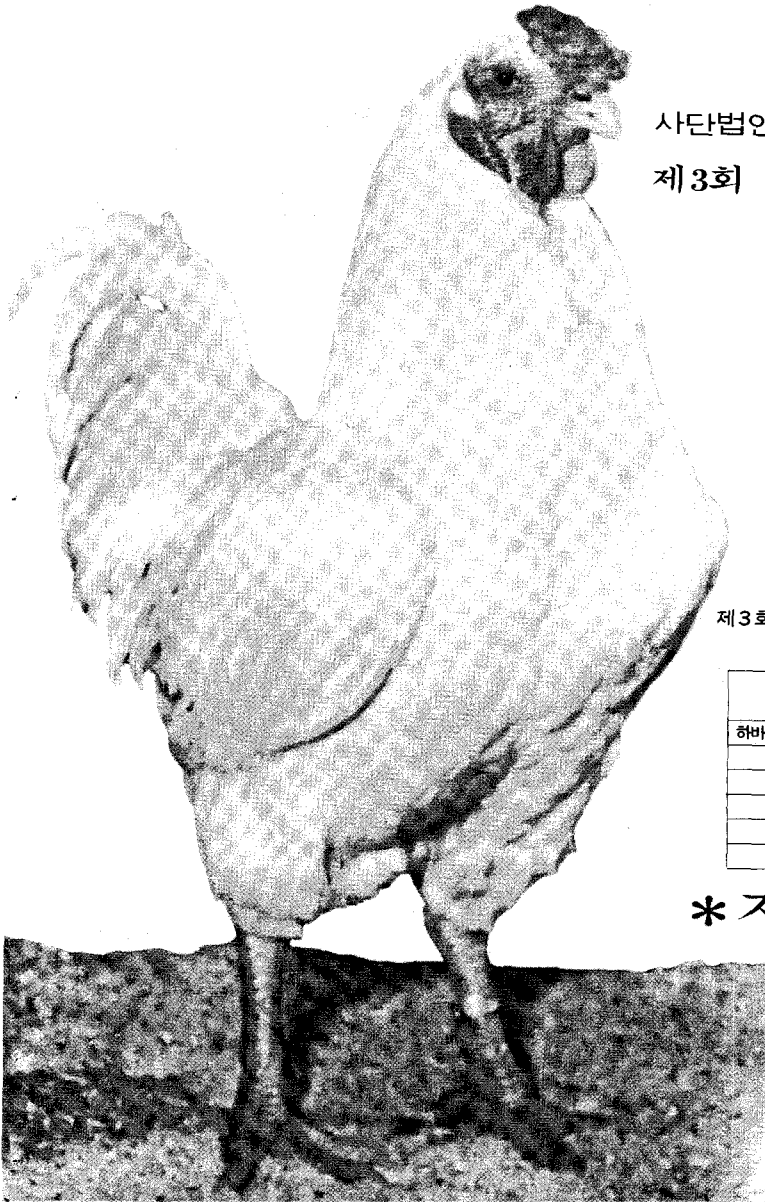
(6) 유통질서가 문란하며 체계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7) 양계업이 타 사업에 비하여 시작이 용이하며 기업으로서 용이한 점.

이상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누구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고 반성하여 건설하고 안정된 양계산업으로 발전되도록 힘과 마음을 합치어 이 비상사태를 극복하는데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며, 앞으로 또 어떠한

—HUBBARD FARMS, 가 드리는
부로일러의 세계 챔피언

하바드 육용계



사단법인 한국가금협회 실시
제3회 육용계경제능력
검정에서

당당제1위

제3회 육용계 경제능력검정 성적(1971. 10. 12~1971. 12. 21)

10주간

	생존율%	체 중		사료요구율		이익	
		8주	10주	8주	10주	8주	10주
하바드육용계	100	1,880g	2,451g	2.13	2.43	7,156원	8,100원
I	100	1,745	2,230	2.14	2.42	6,195	7,354
P	97.3	1,825	2,371	2.16	2.46	6,242	7,033
A	100	1,699	2,276	2.19	2.40	5,559	7,387
S	98.6	1,774	2,348	2.20	2.48	5,789	6,866
D	97.3	1,715	2,264	2.16	2.47	5,813	6,352

*지방대리점 모집중!

HUBBARD FARMS,

—韓國總代理店—

新基農場

輸入元: 大邱市 北區 山格洞1382-8
TEL. ④ 4925

본 장: 대구시 북구 산격동 3구 1382-8

電話 ④4925 ④7247

대전분장: 대전시 갈마동 172번지 (구단학농장)

電話 ②9945



Pfizer

Vigofac



U. G. F. (未知成長因子)를 선사합니다.

◇ U. G. F (유지에프. 미지성장인자)란 무엇인가?

세계 영양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각종 비타민이 발견된 후에도, 가축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미지인자(未知因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성분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우선 未知成長因子(U. G. F)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며, 병아리의 발육, 종계의 번식에는 물론, 새끼돼지의 발육, 암돼지의 임신과 비유(泌乳)에도 꼭 필요한 인자입니다.

◇ 대한신약에서 U. G. F. 를 선사하게된 것은 큰 자랑입니다.

우수한 약효와 신용을 자랑하는 '화이자'에서 항생물질공장이 가동되면서 U.G.F. 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한신약만이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71년12월부터 생산되는 폐사의 종합첨가제 「에그믹스-S」와 「로비믹스AD3」등 각종 사료 첨가제에 U.G.F.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이자'제품의 소비자에게 감사한 뜻을 전하기 위하여 「테라마이신 고농도 분말」 「테라마이신 산란강화제」 500gm을 구입하시는 소비자에게는 U.G.F를 예쁘고 포장한 「비고확」 500gm 1봉을 회사품으로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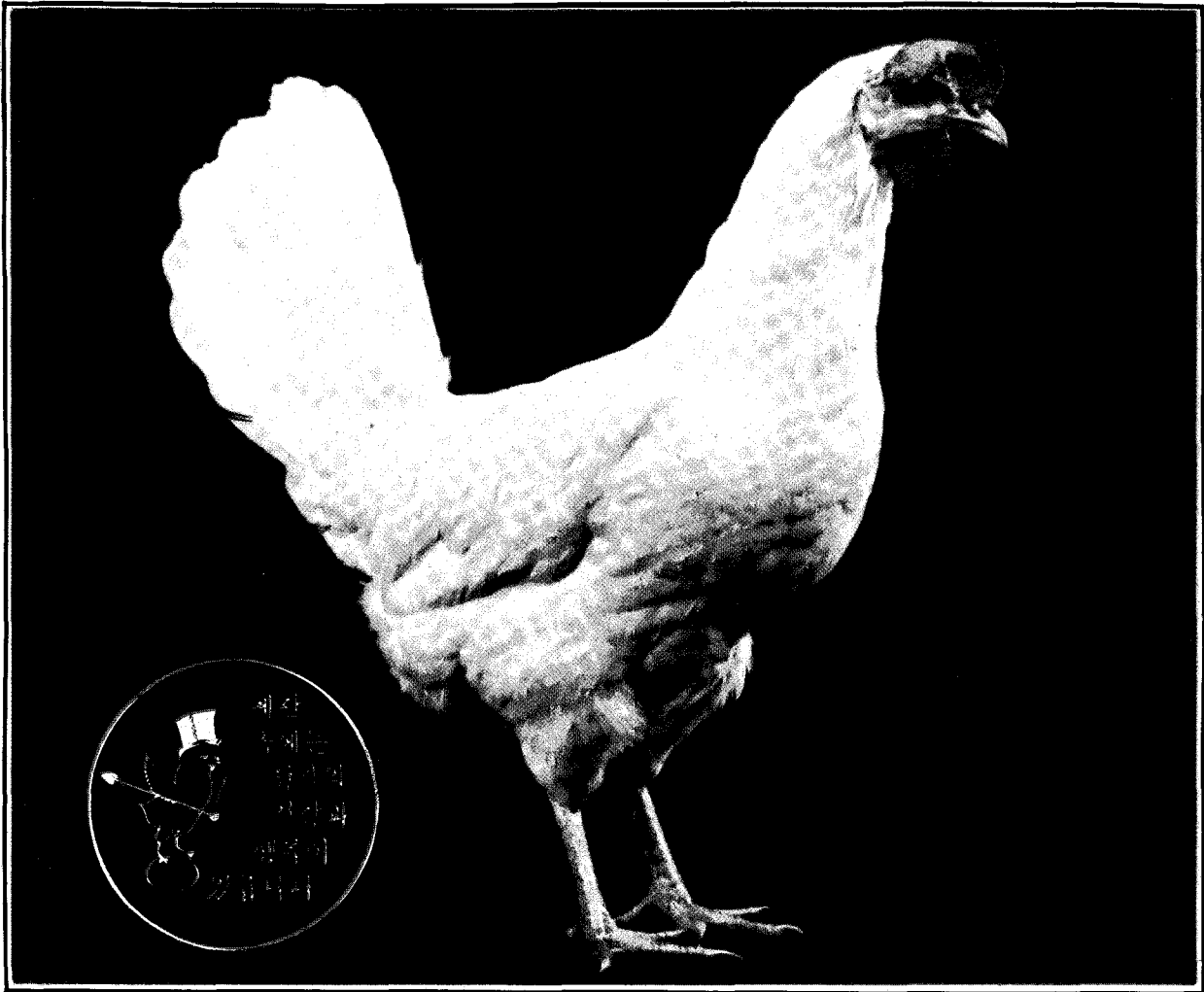
大韓新藥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40번지
Tel. 22-3915-3965-3927

유리브리드 하이섹스

hisex

社の 世界的인 經濟鷄,
白色産卵鷄를 紹介합니다.



世界の 저명한 30여개 原種農場中에서 엄선한 유리브리드社の 白色産卵鷄. 하이섹스 hisex 는 한국시장에 꼭 適合한, 여러분이 願하시는 그 닭입니다.

圖 卵産量 産卵數.....12個月 平均産卵數 280~290 個

圖 肉質性 肉率 卵重及卵重率...32%肉率 肉率 28% 대란(스탠다드) 82%

圖 産卵性의 改良.....하이코쿠라사마G無菌種鷄, 白血病容색종계

圖 肉質性 體重.....鹼性飼料條件에 適合한 成體重 1.9kg.

유리브리드 한국자매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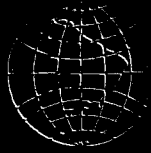
천호부화장

서울·성동구 성내동50, 전화 55-1983



구라파에서 가장 규모가 큰,
능력있는 원종농장.....

Euribrid



ISHII F707

국내 유명 부화장에서 생산되는 육계 전용종 6개 품종을 선택하여 9주간에 걸쳐 사육시험을 실시한 결과 초대형 ISHII F707이 단연코 최상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시험 성적

항목	품종	A	B	C	D	E	이시이F707
9주시생체중		1,791	1,855	1,980	1,820	1,801	1,990
사료요구율		2.58	2.58	2.48	2.52	2.63	2.45
육성율		98.7	98.3	98.7	99	98.7	99.3

(※ 1구당 암수 각각 900수씩 1,800수씩의 시험예임)

전국대리점

부화장명	주소	성명	부화장명	주소	성명
인산농원주식회사	서울영등포구등촌동203(63)3881~4	김영오	강능부화장	강원도강릉시교동 914	곽기홍
오류부화장	경기도부천시소래면과리 2리 (8) 2274	이성근	일신부화장	강원도홍천군홍천읍연봉리홍천2651	고일혁
도봉부화장	서울성북구도봉동259 (창동 39)	정연	신일부화장	대구시동구범어동 234 (4) 2481·2083	정재덕
에덴농원	서울용산구이태원동251~5 (43-2955 원당 66)	곽태영	원대부화장	대구시서구원대동1441 (3) 6437	윤수용
우석부화장	서울성북구본동 571	이동하	영천부화장	경북영천군영천읍안산3동906영천 607	김중한
구리부화장	경기도양주군구리면인창리1559구리265	민덕기	봉산부화장	경북영주읍휴천리642-44 (영주858)	김진영
계유부화장	경기도인천시만수동 219	이재식	영성부화장	경북안동시용성동1009	강효재
동순부화장	경기도수원시오목천동524 수원2881	동세윤	신진부화장	부산시부산진구덕포동192-4사상 201	손종현
순흥목장	서울동대문구중화동37 (96) 5459	이한순	중앙부화장	전북전주시덕진동1가1301 전주 6977	최형인
동명부화장	경기도안성읍신흥동 228	박성규	광주부화장	전남광주시양림동 8 의15 (2) 8726	박종인
제천부화장	충북제천읍 제천 3435	이종원	별교부화장	전남보성군별교읍계성리 93	이복구
성민부화장	충남아산군운양읍 운양 329	홍세표	남성통상	서울영등포구등촌동 203	강순식
새마을부화장			성신부화장	충남천안군성환면성월리 성환 162	이금영
관동부화장	강원도강릉시홍제동 2구14반 강릉3428	배명호			

이시이한국총대리점



인산농원주식회사
남성통상주식회사

난관이 새로이 돌아올런지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구적이고 안정된 양계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언한다

1.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

근래 수년간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수요량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나 외화 수입실정상 극히 걱정되는 바 크다. 만일에 갑자기 도입수량에 차질을 가져오면 양계업계는 큰 타격을 면치 못하게 된다.

사료의 도입량이 6년전에는 3천톤에 불과하던 것이 71년도에는 48만톤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한 외화의 지출은 3,500만불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고 도입사료에 의하여 생산된 축산물이 외국에 일부라도 수출되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순전히 국내 소비에 그쳤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식생활의 개선과 영양의 공급산업발전에 큰 공헌은 되었으나 국가적인 견지에서 계속 이렇게만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제는 국내사료자원의 최대 이용과 개발에 전력을 다하여 도입량의 증대를 억제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자세와 법적, 행정적시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가지 방법으로 도입사료에 0.1%라도 가산하여 이 돈은 순전히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과 활용성 증진에 사용토록 하는 자율적인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사료값이 싸다고 호경기가 오고, 비싸다고 불경기가 온다고 만은 볼 수 없다. 항상 일정한 값으로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의 전망은 암담할 뿐이니 하루속히 장기적인 대책이 확립되어야 감작스러운 수급의 차질과 가격의 폭등은 양계업에 큰 공황뿐만아니라 파탄까지 몰고 올 가능성이 보인다.

2. 국산계 육종 개량증식

외국계의 도입량이 매년 증가되어 71년에는 55만수가 넘었다. 무제한 도입으로 인하여 업계의 불황을 가져왔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비싼 외국 종계를 매년 도입하여 과도한 경쟁

과 초생추의 생산과잉으로 불황을 가속화하며 오래 지속되고 있다.

물론 외국의 능력이 좋은 경제적인 종계의 도입으로 인하여 양계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 못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외화의 낭비라고 볼 수 있다.

양계 경영면에서는 생산성(生産性)이 높아 소득의 증대를 가져왔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지나친 도입량의 증대로 생산이 과잉되어 비싼 종계에서 낳은 알이 식란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외국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도입한 종란은 120% 최대 활용토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도입량을 최대 억제하고 수년 내에는 국산계로 대체되도록 육종사업에 주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입계로 인한 새로운 질병이 침입되고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또한 여러 종계장에서 34여종의 종류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가지 질병도 도입될 염려가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외국계의 값과 국산계의 값의 차이로 초생추판매에 있어서 가격과 품질면에서 불신도가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여러가지를 공과(功過)를 들 수 있으나 먼 앞날을 생각하고 현실 외환실정을 고려하여 외국계의 도입은 가급적 삼가하고 국내육종을 축구하며 또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육종개량에 필요한 품종과 수량만을 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시적이거나 혼란을 가져올 염려는 있으나 이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양계업자도 스스로 반성하고 감수되어야 한다.

그러니 국립기관의 시험장과 종축장, 그리고 큰 민간 종계장에서는 하루속히 육종번식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육성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통계조사 실시 및 공개

외국계의 도입수수, 부화장에서 생산되는 초생추의 수수, 성계 수수, 사료의 도입 현황과 전망 등수시로 정확한 통계적인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공개가 되므로써 수급 조절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한편 경제성까지도 고려되어야 큰 파동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확한 조사 통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회나 개인 또는 관에서도 공개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 나갈 길이라고 할 수 있다.

4. 부화장 시설기준의 강화와 종계등록 사업

전국의 부화장수는 약 350여개소로 그의 능력은 1,700만개의 수용능력을 가졌다고 추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수요량으로 보아서 약 30%정도의 가동율이면 충족하다고 본다.

그런데 규모와 능력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난 여름 서울 경기 일원의 약 90여개소의 부화장의 실태를 조사한 바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비위생적이며 무질서한 초생추의 생산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하루속히 행정력과 법적 뒷받침의 강화로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즉 부화장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불량한 곳은 부화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량업자의 과도한 경쟁으로 선의의 부화사업자도 피해를 입게되며 또한 양계업자도 위생면에서나 품질면에서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병아리를 구입하는 양계업자도 가격적으로 싼것만 찾아 아무데서나 구입치 말고 자기의 권익을 위하여 선택에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종계의 등록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능력검정을 확대 강화(強化)하여야 한다.

즉 각 부화장에서 생산되는 종계의 현황을 사실대로 노출시키고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초생추의 능력을 검정하여 육종개량의 추구하고 자질개량의 자료를 주며 초생추구입의 지침이 되어 양계업의 발전을 촉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규모의 확대보다는 내적인 충실로 알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것

자기의 경영능력과 기술, 자본, 노력, 지역적인

경제조건 및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으나 적정 규모의 경영으로 보다 더 소득을 올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양계는 투기적인 사업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노력과 기술의 대가를 받을 뿐이다.

그러니 남을 뒤따르다가는 항상 손해를 보게되며 허영심은 실패를 가져온다.

어떻게하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느냐? 하는 것이 큰 초점이 될 것이다.

즉 육성비의 절감을 비롯하여 사료비, 인건비, 닭의 상각비, 위생비, 광열비 기타 운영관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능력을 남보다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물이 보다 유리하게 판매되어야 한다.

계란 1개당 1원을 더 받으면 산란율을 5% 더 올린 것과 같다. 그러니 계란을 유리하게 팔며, 파란이나 연란을 적게하여 상품가치가 있게하고, 다만 몇전이라도 더 받도록하여야 한다. 계란뿐만이 아니라 폐계, 계분, 공가마등 모든 것이 낭비가 없이 유리한 판매가 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알찬 경영과 내부의 충실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모한 규모의 확장은 삼가하여야 한다.

6. 협동체계에 의한 생산의 계열화

우리나라에서 협동이 잘 되지않는 원인의 하나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서로 불신(不信)의 씨앗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동이 되어야하고 계열화가 이루어져야 경영상 유리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서로 개인주의를 버리고 불신의 요소를 제거하여 서로 협동하고 계열화하여 안정된 계획생산이 이루어지고 또한 계통출하를 실시하여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하는 바이다.

협동조직에 의하여 공동구입, 공동출하 등 분업적인 계획생산, 공제(共濟)자금의 활용도 증진, 기술의 공동개발과 개선, 시설과 기구의 공동이용 등 여러가지로 유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협동체제와 조직이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권익을 보호받도록 해야한다.

7. 양계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증대

- (1) 계란과 닭고기의 등급제와 중량판매 실시
- (2) 규격화와 검사제 실시
- (3) 닭과 계란의 전문 도매시장 설치
- (4) 닭고기와 계란의 영양가치를 인식시키고 가장 값싼 것임을 주지시킬 것
- (5) 유통경로를 단축시켜야 한다.
- (6) 가공처리의 추수와 저장시설의 증대
- (7) 위생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이 이외에 여러가지를 들 수는 있으나 유통과정이 문란하고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생산자만 큰 피해를 받게 마련이다.

이것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은 못되나 생산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합심하여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8.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인습을 버려라.

양계를 몇년간씩 한 사람들이면 모두 기술자가 되었고 박사가 된 것같이 보이며 한편 말로는 잘하고 또한 잘 알면서도 개선되지 않으며 실천 못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서로 배우고 연구하며 개선해나가는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고식적이고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창의와 창조적인 정신으로 성실하게 개척하고 끈임없이 전진하여야 한다.

9. 종합적인 양계진흥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법이 없이 잘 되어나간다면 좋겠지만 후진사회일수록 자율성 보다는 법이 선행(先行) 선도(先

導)되어야 되고 강력한 규제와 제도가 있지 않으면 아니되며 아울러 법의 보호를 받아야만 된다.

그러므로 양계업의 건실한 발전과 안정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현재 축산법만으로는 부족하며 시행령도 현실과 거리가 먼 감이 있으니 100만이 넘는 양계농가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양계진흥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즉 양계진흥법의 내용은

- (1) 양계안정기금의 확보와 운영방법
- (2) 종계장의 시설기준
- (3) 종계등록사업과 능력 검정기준
- (4) 부화장의 시설기준
- (5) 육종개량사업의 장려와 보호
- (6) 초생추의 생산조절
- (7) 도계장의 시설기준과 위생검사.
- (8) 계란과 닭고기의 검사제도의 규격화
- (9) 양계산물의 도매시장 형성과 저장
- (10) 닭질병의 방역대책과 위생문제
- (11) 양계산물의 수출지원
- (12) 외국계도입 심의기구 설치
- (13) 양계진흥 심의기구의 설치등

여러가지 양계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법안이 입법되어야 하며 이에 우리 양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상 여러가지로 안정된 양계업의 경영을 위하여 설명하였으나 양계는 다른 가축에 비하여 증식 확대생산이 빠르고 기업성이 용이한데다가 소비추세가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여건하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되므로 항상 기복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파동을 최소한으로 하기위하여는 국내 병아리와 국산 사료자원에 의하여 생산체계를 확립하도록하고 알찬 경영의 개선과 유통체계를 확립토록하여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스스로 협동심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계진흥법이 하루속히 입안되어 문란한 생산체제와 유통체제에 제제를 가하는 반면 법적인 보호로서 안정된 산업으로 건실하게 발전되기를 바란다. □□

“닭내장은 비삼(飛參)이다”